

“딥페이크 가해자 사적제재 자제를… 영상삭제 ‘핫라인’ 개통”

오세훈 서울시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 토론회

익명 접수 SOS 상담창구 개설
검출기술 ‘서울 안심아이’ 개발

삭제 지원 주체 국가→지자체
조속히 법령개정 추진해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인공지능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생성·유포되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세훈 시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인공지능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생성·유포되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며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사도 힘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 학교가 400~500곳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빠른 삭제제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해 신고 24시간 안에 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을 이미 개통해서 사용

하기 시작했다”며 “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만큼 익명으로 쉽게 상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 창구도 개설했는데, 벌써 적지 않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피해 사실이 고통받고 있거나 나도 혹시 피해자가 아닐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늘 함께하겠다”면서 “아울러 딥페이크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를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 법률 지원,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 2022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를 포함해 총 1437명에게 3만9764건의 피해 지원을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AI로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감시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해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2시간에서 3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시는 올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달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부터 재발 방지에 이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그린벨트 지역 등 토지 이용실태 현장조사

서울시, 정기조사 안받은 곳 등 대상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 목표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 가 논란이 돼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다. 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하게 된 토지를 쓰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한 토지는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 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과 같은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남북 교배품종 ‘평원벼’ 판매 개시

브랜드 ‘평화미소’... 오늘까지 예약

파주시는 국내 최초 남북 교배 품종인 평원벼를 파주쌀 브랜드 ‘평화미소’로 상품화해, 이번 추석에 햅쌀로 선보인다. 파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4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평화미소’의 첫 출시를 앞두고 장단면의 평원벼 수확 현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의원들과 북한이탈 주민들로 구성된 임진강예술단 등 다수의 내빈이 모여 농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평화미소’의 성공적인 첫 출시를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파주 민통선 지역 내 수확현장에서 열린 ‘평화미소’ 첫 출시 행사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참석해 쌀 수확을 하고 있다. /파주시

‘평화를 원하는 벼’라는 의미를 담은 ‘평원벼’는 농촌진흥청이 남한의 진부 19호와 북한의 삼지연4호를 교배해 육성한 국내 최초의 남북 교배 품종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접수

대교협, 공동원서 통합회원 가입 당부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9일부터 진행되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이 미리 대입 공동원서의 통합회원 가입 및 공동원서 작성을 하도록 당부했다.

공동원서 접수서비스는 한번 작성한 공동원서로 여러 대학을 지원할 때 활

용할 수 있는 원서접수 서비스다.

이번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9일부터 13까지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이다. 전문대학은 1차 모집이 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차 모집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다.

수험생은 ‘사전 서비스’ 기간을 활용해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동원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애플라이 또는 진학여플라이 중 한 곳을 통해 통

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대행사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공동원서는 미리 가입한 ‘통합회원ID’를 통해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에 로그인해 작성한다. 공동원서 항목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이다. 환불 계좌정보 입력 시에는 반드시 대학의 환불 시점에 사용이 가능한 유효 계좌번호로 입력해야 한다.

한 번 작성한 공동원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정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9월 4일 (수) 음력: 8월 2일

수도권 날씨 22~3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8/31, 동두천 19/31, 가평 17/31, 파주 19/31, 서울 22/32, 양평 18/30, 인천 23/31, 수원 22/32, 용인 22/31, 평택 20/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TSMC, 美 애리조나에 2나노 이상 첨단 공장 3공장 건설
▲테슬라 8월 중국 판매 3% 증가-BYD 는 30% 급증 /사진 뉴스스

▲프랑스, 25년 만에 신규 원전...플라 망빌 3호기 가동 준비
▲獨 BMW 전기차 미니 쿠퍼 SE 전세 계 리콜, 약 14만대 해당



▲트럼프에 이어 해리스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입장 /사진 뉴스스
▲네타냐후 연설에 여론만 악화...“역대 최악의 안보 실패”